

글로벌 보건산업 동향

Global smart
Healthcare
Industry Trend



FOCUS

COVID-19, 각국별 연구동향 비교 분석



CONTENTS

01

포커스

- COVID-19, 각국별 연구동향 비교 분석 1
-

02

디지털 헬스케어

- 미국, HIPAA의 빅데이터 정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이슈 4
 - 독일, 세계 유일의 감염 연구를 위한 광자학 연구소 설립 4
 - 인도,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인 Netra.AI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 개선 5
 - 일본, PHR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5
 - UNESCAP,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비한 혁신적인 솔루션 필요성 강조 6
 - WEF, MS와 협력하여 AI 기반 암치료 프로젝트 출범 6
-

03

4대 보건산업

- 미국 NuVasive, 척추측만증 의료기기의 미국내 판매 중단 7
 - 영국, 보건의료법안 개정 추진 7
 - 프랑스, 헬스케어 혁신 2030 전략 발표 8
 - 유럽, COVID-19가 비만 치료에 미친 영향 조사 분석 결과 8
 - 유럽 EC, 암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센터 개설 9
 - 싱가포르와 호주, 서로 다른 COVID-19 출구 전략 채택 9
 - 화장품, '클린'을 전면에 내세우는 뷰티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 10
 - WHO, 람다 변이바이러스를 관심변이종 목록에 등재 10
-



COVID-19, 각국별 연구동향 비교 분석

COVID-19 팬데믹으로 전례없는 규모의 데이터가 수집·활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회계·컨설팅업체인 딜로이트(Deloitte)社は 방대한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학논문 검색엔진인 퍼브메드(PubMed)에 '21년 4월까지 게재된 12만 건 이상의 COVID-19 관련 논문을 복수의 데이터 과학 방법을 조합해 분석하고, 그동안 진행된 각국의 연구동향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간

[1] 미국, 압도적인 논문 수를 자랑하며 연구 허브로 등극

■ 퍼브메드(PubMed) 게재된 COVID-19 관련 논문 수는 누계로 12만 8,952편(4월 30일 기준)이며 신규 논문 투고는 '20년 3월 급증했고 5월 이후에는 매월 1만 편 전후로 추이

- 미국과 영국은 논문 수를 늘리며 COVID-19 관련 연구 허브가 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주목도가 높은 감염확대 초기에 투고된 논문을 다수 보유
- 세계적으로는 최근 '백신' '디지털 헬스' 등의 연구 토픽 논문 증가율이 높지만 일본은 해당분야에 대한 주력도가 낮은 상황이며 '디지털헬스' '인포머틱스' 등은 COVID-19 이외의 연구 분야에서 주목도가 높은 영역으로 포스트 코로나 세계에서도 중요한 연구영역이 될 전망
- PubMed 수록을 기준으로 한 '20년 1월 이후 월간 논문 건수 추이를 보면 '20년 3월 이후 논문수가 급증했고, 5월 이후 1만 편 전후에서 추이하고 있는데, 이는 빠른 속도로 연구 활동이 지속되고 있음을 시사
- 또한 논문 수가 급증한 시기와 증례(症例) 수 급증 시기가 대체로 일치하고 있어, 세계 각국이 대처 결과를 즉시 공유하고 있는 상황
- 논문 저자가 소속된 기관 정보를 바탕으로 논문에 국가 정보를 할당한 결과, 논문 수는 미국이 3만 2,609편으로 2위인 중국(1만 3,558편)보다 2배 이상 많았고 다음은 영국(1만 3,211편), 이탈리아(1만 1,448편), 인도(7,218편), 스페인(5,481편) 순
- 논문 수 상위는 대체로 선진국이 많지만 중국, 인도 외에 브라질(3,656편), 남아공(1,196편) 등 신흥국과 이란(2,839편), 터키(2,375편), 사우디(1,863편) 같은 중동국가의 연구도 활발
- 논문의 피인용수 합계는 중국(35만 4,940편)이 미국(30만 7,181편)을 넘어 1위를 기록했으며 인용수 합계에서 피인용 수가 차지하는 각국의 비율을 월간 추이로 보면 '20년 1~3월은 중국의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
- 그러나 동 비율은 4월 이후 계속 낮아지고 있으며 1위는 미국, 9월 이후에는 2위도 영국이 차지하는 상황

[2] COVID-19 연구토픽의 카테고리별 분류

■ 앞서 COVID-19와 관련한 논문을 ‘논문 수’ ‘피인용 수’에 초점을 맞춰 비교했지만 이들 지표는 인구 및 경제발전 레벨이 좌우할 수 있다고 판단해 대상을 선진국으로 좁혀 분석

- 더불어 인구 차이에 따른 영향도 제거하기 위해 인구 10만 명 당 논문수와 평균 피인용수를 이용해 각국의 COVID-19 관련 연구 상황을 비교
- ‘논문 수(10만 명 당)’와 ‘평균 피인용 수’를 지표로 COVID-19 관련 연구에 대한 주력도와 주목도를 가시화한 결과, 일본의 논문 수(10만 명 당)는 선진국 31개국 중 30위, 평균 피인용 수는 20위로 선진국 가운데 주력도, 주목도 모두 낮다는 사실을 확인
- 유럽 국가들은 증례 수, 사망자수가 일본보다 많아 연구가 활발하지만 한국이나 호주는 주목도, 주력도 모두 일본보다 높음에도 단위인구 당 누적 증례 수, 사망자 수가 적다는 것은 COVID-19 관련 연구의 주목도, 주력도가 감염확대의 심각도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을 의미
- 일본의 COVID-19의 증례 수는 비교적 낮지만 연구나 백신접종 등의 적극적인 감염 대응에서 선진국 가운데 뒤처지고 있음을 데이터로 추측
- 자연언어처리 접근법으로 정의한 27개 연구 토픽을 연구 분야와 감염증 대책 단계로 분류하고 전체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각 토픽의 논문 비율을 각 연구토픽의 주력도 지표로 활용
- 그 결과, 각 연구토픽의 주력도는 ‘진단’을 취급하는 논문 비율이 0.19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합병증’(0.167) ‘심리적 영향’(0.099) 등이 기록

□연구토픽의 카테고리별 분류□

| | | 감염증 대책 단계 | | | | | |
|-------|--------|--|-------------|-------------------------------------|----|----------------------|-------------------|
| | | 기초연구·기술 | 예방 | 발견·봉쇄 | | 치료 | 사회·경제활동 |
| 연구 분야 | 의약·바이오 | 변이종 세포 침입 (바이러스 수용체 등) 생체내 정보전달 | 백신 | PCR | 진단 | 신약개발 투약·수술 합병증 | 정책 경제 입법·법률 |
| | 공중위생 | | 예방행동 마스크 | 제역·소독 검역·봉쇄(락다운) 物理: 물리적 거리두기 | | 의료자원 | 심리적 영향 교육 |
| | 정보기술 | 바이오 인포머틱스 ※ 통계·기계학습 포함 | 예측 | 접촉 추적 시검사 및 진단 | | 디지털 헬스 | 차별·평등 |

- 연구 분야로 보면 ‘의약·바이오’에 주력도 높은 연구가 집중됐지만 ‘공중위생’ ‘정보기술’에도 ‘검역·봉쇄’(0.045) ‘디지털헬스’(0.037) 등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 연구토픽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
- 감염증 대책 단계로 보면 ‘발견·봉쇄’ ‘치료’ 카테고리에 주력도 높은 연구토픽이 많았고 ‘사회·경제활동’ 카테고리에서 ‘심리적 영향’(0.099)의 논문비율이 높다는 점은 COVID-19의

영향이 정신적으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 각 연구 카테고리별 논문비율 추이를 보면 감염확대 초기와 현재는 그 구성 비율이 크게 변화
- 연구 분야는 감염확대 초기는 ‘의약·바이오’가 대부분이었지만 최근에는 ‘정보기술’ 카테고리의 신장세가 현저하고, 감염증 대책 단계로 보면 발견·봉쇄→치료→예방 및 사회·경제활동 순으로 비율이 증가
- 최근 논문수가 늘어나고 있는 연구 카테고리를 특정해 보면, 연구 분야는 ‘정보기술’ 논문이 가장 많이 늘어나고 있으며(147%) 감염증 대책 단계는 ‘예방’ 카테고리가 가장 증가(178%)
- 각 연구 토픽의 논문 증가율도 분석한 결과 ‘정보기술’ 카테고리는 ‘AI검사·진단’(170%), ‘인포머틱스’(168%), ‘예측’(155%)이 상위를 차지하고 있어 AI나 인포머틱스 같은 기술을 활용한 해결책 모색이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
- ‘예방’ 카테고리는 ‘백신’(206%), ‘예방행동’(175%), ‘예측’(155%)이 상위를 차지해 연구의 중심이 ‘발견·봉쇄’ ‘치료’ 등의 긴급 대응에서 ‘예방’이라는 항구적인 대응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대응의 중심이 ‘백신’ 접종이 되고 있음을 확인

[3] 국가별 중점 연구 토픽

■ 한편 국가별 각 연구 토픽의 논문이 해당 국가의 전체 논문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해 각국이 주력하는 연구토픽을 추정하고 연구 토픽별로 각국의 주력도를 순위로 책정

- 각국이 주력하고 있는 영역을 비교하면 예를 들어 미국은 ‘디지털 헬스’ ‘교육’ 등에서 선진국 31개국 중 1위인 반면 ‘백신’ ‘PCR’을 비롯한 많은 연구 토픽에서 주력도가 10위권에 위치하고 있어 다양한 연구 토픽을 균형있게 연구하고 있음을 확인
- 호주와 뉴질랜드는 ‘의약·바이오’ 카테고리 연구 토픽은 하위권에 있지만 ‘공중위생’ 카테고리 및 ‘사회·경제활동’ 카테고리는 상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치 주도의 행동제한이나 공중위생 시책의 최적화 등을 통해 성공적인 감염봉쇄를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
- 한국과 일본은 각 연구 토픽의 주력도는 유사성이 높고 ‘의료·바이오’ ‘공중위생’ 카테고리는 비교적 상위에 있지만 한국이 ‘정보기술’ 카테고리에서 10위권 내 연구토픽이 3개인 반면 일본은 동일한 카테고리의 연구 토픽이 모두 16위 이하
- 또한 한국의 ‘백신’ 주력도가 11위인 반면 일본의 ‘백신’ 주력도는 26위로, 일본이 성장성 높은 연구 토픽에 대한 주력도가 낮다는 사실을 확인
- 백신 접종과 함께 COVID-19 팬데믹이 종식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앞으로는 COVID-19 관련 연구 성과나 지식을 COVID-19 이외의 연구와 의료, 공중위생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Deloitte, 2021.07.16.; 科学技術·學術政策研究所, 2021.06.30.]



디지털 헬스케어

미국, HIPAA의 빅데이터 정부개정안에 대한 주요 이슈

-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1996년 제정한 ‘건강보험의 이동성과 책임성에 대한 법률(HIPAA)’에서 가치기반의료로의 전환에 방해가 되는 표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안을 제안하자 개인정보보호를 옹호하는 비영리단체 전자개척자재단(EFF)이 반대 의견을 제시

* 전자개척자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EFF)은 디지털 사회에서 시민의 기본적 권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비영리 단체

- 환자에 대한 방대한 양의 의료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전자건강기록(EHR)과 머신러닝모델의 활성화를 위해 HHS는 최근 이해관계자간의 의료정보 교환을 방해하는 조항의 변경 추진
- 그러나 EFF는 이전에 정의되지 않은 ‘사례관리(case management)’와 ‘진료협력(care coordination)’ 등을 포함하는 ‘헬스케어운영(health care operations)’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환자의 동의없이 의료정보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프라이버시에 대한 위협요소로 간주

[AIM, 2021.07.05.; EFF, 2021.06.10.]

독일, 세계 유일의 감염 연구를 위한 광자학 연구소 설립

- 독일연방교육부(BMBF)는 광학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감염병의 진단 및 치료에 돌파구를 제공할 감염연구 광자학 라이프니츠센터 설립 계획을 발표

- BMBF는 '27년 중반까지 예나(Jena)에 세계 유일의 감염 연구를 위한 광자학 연구소 (Leibniz-Zentrum für Photonik in der Infektionsforschung)를 설립하고 향후 수년간 1억 2,400만 유로를 지원할 계획을 밝히며 독일이 혁신적 의료 기술 영역에서 세계 정상을 차지하겠다는 포부를 천명
- 새로운 감염 연구 광자학 센터는 전통적 의미의 연구소가 아니라 세계 유일의 전송 인프라로, 성공적 연구 결과를 병상에 적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하는 플랫폼을 의미
- 예나의 광학기술 라이프니츠연구소(IPHT)는 예나 대학병원 및 프리드리히 쉴러 예나 대학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롭고 유망한 광학기술 기반 감염병 진단 방법을 개발

* 병원체에 대항할 항생제 분석에 통상 3일이 소요되지만, 연구소는 새로운 레이저 기반의 속성 테스트로 3시간 만에 분석하는 방법을 개발하며, 특히 패혈증 진단에 획기적인 진전을 보일 것으로 전망

[BMBF, 2021.07.07.; SAZ Aktuell, 2021.07.07.]



인도,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인 Netra.AI를 활용하여 질병 진단 개선

- 인도 비영리기관인 ‘산카라아이파운데이션(Sankara Eye Foundation)’은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딥러닝(Deep Learning)과 인공지능(AI) 헬스케어 스타트업인 레벤케어(Leben Care)와 협력하여 인도의 망막 위험평가 소프트웨어인 Netra.AI를 사용하여 진단 접근성을 개선
 - Netra.AI는 인텔 기술로 구동되는 클라우드 기반 AI 솔루션으로 딥러닝 기술을 이용하여 아주 짧은 시간에 망막의 상태를 규명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이러한 진단의 정확도는 의사가 수행하는 진단에 맞먹는 정확도를 가진 것으로 평가
 - Netra.AI는 당뇨병 망막증 진단의 정확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질병 진단의 개선으로 안구의 유리체와 망막의 사이에 존재하는 초자체와 황반의 진단에 대한 안과의사의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
 - 인도처럼 환자 대비 의사수가 부족한 나라에서는 인공지능에 의한 원격의료나 로봇 공학을 통한 의료 전문가에 대한 접근의 확대가 필요한 상황

[Financial Express, 2021.07.05.; Business Line, 2021.06.01.]

일본, PHR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 현재 일본은 전자건강기록(EHR)의 전제가 되는 전자차트 보급은 지연되고 있으나 마이나라 포털 연계를 전제로 한 개인건강기록(PHR) 이용환경이 정비되고 있으며, COVID-19로 활발해진 온라인 진료는 전자차트를 포함한 의료의 정보화 전반을 촉진
 - PHR의 실현은 의료정보시스템, 전자차트 시스템 도입 등 EHR과 여러 기관이 의료정보를 연계하는 헬스케어정보교환(Healthcare Information Exchange, HIE) 정비가 전제
 - * 개인건강기록(Personal Health Record, PHR)은 건강관련 정보를 본인이 열람·관리하면서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의사결정에 기여하는 구조 또는 이러한 구조를 통해 관리되는 데이터를 의미
 - 일본 정부는 '21년 6월 ‘건강·의료전략 실행상황과 향후 대처방침 2021’을 통해 △고품질 PHR 서비스를 목표로 하는 가이드라인 책정 △PHR사업자의 업계단체 설립과 해당 가이드라인을 고려한 서비스 제공 △인증구조 정비 등의 지원 의지를 표명
 - 앞으로 개인의 PHR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개인들의 관심이 높은 바이탈 데이터 기반의 서비스를 추진해 PHR서비스가 삶의 질(QOL)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라는 인식 형성이 중요
 - 바이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는 이용자 본인의 생체신호를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수집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

[JIPDEC, 2021.07.07.; AGARA, 2021.07.06.]

UNESCAP, 고령화와 만성질환에 대비한 혁신적인 솔루션 필요성 강조

■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많은 국가들은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아시아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UNESCAP)'는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적인 솔루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보고서를 발간

- 지속가능한 보건의료 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하여 아시아태평양의 △각국 정부는 건강 정보의 획득과 저장, 전송 및 표시하는 시스템을 결합 없이 매끄럽게 관리 하며 △의료 전문가, 보건 서비스 전문가와 환자는 물리적 거리의 제한 없이 연결되는 통신 시스템의 확보가 필요
- 또한 △증거 기반의 진료 결정을 가능하게 하는 컴퓨터 기반의 자동화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환자와 의료 전문가들에게 직접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의 정보 시스템이 요구
- 보고서는 COVID-19 팬데믹 상황의 뉴 노멀 상황에서 만성질환을 가진 노년층의 니즈에 부합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솔루션의 제시 필요성을 강조

[UNESCAP, 2021.07.07.]

WEF, MS와 협력하여 AI 기반 암치료 프로젝트 출범

■ 인도의 세계경제포럼(WEF) 4차혁명센터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와 협력하여 인공지능(AI)기술 기반 암치료를 위한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4차산업혁명(Fourth Industrial Revolution for Sustainable Transformation, FIRST) 프로젝트'를 시작

- Microsoft는 세계적 수준의 종양학자들의 암 진단을 돕기 위해 머신러닝과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며, 단일 암세포의 유전체를 파악하기 위해 캐나다 BC Cancer와 협력하는 한편, 클라우드 기반의 바이오 모델 분석기(Bio Model Analyzer) 등의 기술을 사용
- AI 기반의 보건 의료는 서비스의 불평등을 줄이고, AI 기술과 결합된 암의 진단과 치료는 진단의 속도와 정확성을 제고하며, 치료 관련 의사결정을 도울 뿐 아니라 치료의 예후도 개선 가능
-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00~'19년 기간 중 70세 이하 인구에서 암으로 인한 사망이 1~2위를 차지하는 국가가 183개국 중 112개국으로 나타났으며, 3~4위를 차지하는 국가는 23개국으로 조사
- '20년에 전 세계 인구의 59.5%가 살고 있는 아시아에서 전 세계 암 발생건수의 50%와 암 사망의 58.3%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25년 인도는 12% 증가한 156만 건의 암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정

[World Economic Forum, 2021.07.05.]



4대 보건산업

미국 NuVasive, 척추측만증 의료기기의 미국내 판매 중단

■ 미국 의료기기업체인 누바시브(NuVasive)사가 생산하는 척추측만증용 의료기기인 MAGEC 1.5와 MAGEC 2는 생체적합성 문제로 미국 내 판매가 영구적으로 중단

* 척추측만증(脊椎側彎症, scoliosis)은 척추가 정면으로 봤을때 옆으로 굽어진 병

-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NuVasive의 척추측만증 관련 의료기기 제품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기계적 결함과 함께, 이 기기에 사용되는 성분과 인체 조직과의 적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경고하면서 미국 내 판매를 중단
- Nuvasive의 MAGEC 제품은 이미 지난 4월부터 출하가 중지된 상태이며, CE마크의 사용이 일시 중지되면서 NuVasive사는 이 제품의 전 세계 판매를 자체적으로 중단
- 현재 NuVasive는 MAGEC의 구형 모델의 판매 역시 중단한 상태에서 기기 말단의 분리 현상을 없애고 인체 조직과의 적합성 문제도 개량한 신형 모델을 출시할 예정

[Medtech Dive, 2021.07.16.; Mass Device, 2021.07.15.]

영국, 보건의료법안 개정 추진

■ 영국의 ‘헬스 및 케어 2021~22 법안(Health and Care Bill 2021~22, 이하 보건의료법안)’은 7월 6일과 14일에 걸쳐 영국 하원에서 검토하였으며, '19년 1월에 발표된 NHS 장기계획과 '21년 2월에 발표된 백서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하여 제정할 예정

- 영국 정부가 발표한 보건의료법안에는 최근 팬데믹의 경험이 반영되었으며, 관료주의적 행태를 지양하고 책임성을 강화하여 통합적인 NHS의 자체적인 개혁안을 반영
- 이번 법안에는 △NHS와 NHS England와의 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보건 서비스와 관련된 조달 과정과 경쟁 체계의 변화 △보건 및 사회보장부 장관에게 NHS England 운영 권한 부여 등이 포함
- 또한 △사회보장과 관련하여 ‘케어품질위원회(Care Quality Commission)’가 사회보장 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하도록 했으며 △보건 시스템과 관련하여 법적 실체를 가진 기구로 ‘헬스케어안전조사지부(Healthcare Safety Investigation Branch)’ 설립 등이 포함

[UK Parliament, 2021.07.14.]

프랑스, 헬스케어 혁신 2030 전략 발표

■ 프랑스 정부는 헬스케어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고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헬스케어 산업전략위원회(Strategic Council for the Healthcare Industries, CSIS)’가 작성한 ‘헬스케어 혁신 2030(Healthcare innovation 2030)’ 전략을 발표

- 프랑스는 의약 분야에서 세계 5번째 규모로 '19년 기준으로 제약 기업들이 6백억 유로 규모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으며, 6,700만명이 사회보호시스템에 가입 중이고, 보편적의료보험은 건강비용 지출의 76.8%를 커버하고 있어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자기부담금을 지출하는 국가
- 보건의료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혁신적인 연구기관 25개 중 4개가 프랑스의 연구기관이며, 유럽에서 암 질환과 희귀질환 분야의 치료에서 주도적 위치를 차지
- 이러한 역량과 사회적 시스템을 기반으로 프랑스는 '30년까지 연구 및 기술 개발과 치료법 개발 등에 7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프랑스는 △최고 수준의 연구자 모집, 인프라 구축, 연구 클러스터 조성 등에 10억 유로 △개발 기술의 성숙과 시험 진료에 5억 유로 △생물학적 요법 및 디지털 헬스와 응급 감염 대응 전략에 2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 또한 △유럽 차원의 공동 관심사 추진 프로젝트인 IPCEI(Important Project on Common European Interest)와 관련 산업 투자에 15억 유로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 촉진에 20억 유로 등 총 70억 유로를 투자할 예정

[Gouvernement, 2021.06.29.]

유럽, COVID-19가 비만 치료에 미친 영향 조사 분석 결과

■ COVID-19가 유럽전역의 비만 서비스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의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가 국제학술지 ‘임상비만저널(Journal Clinical Obesity)에 게재

- 유럽 10개국의 비만 관련 의사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10개국에서 50~100%의 진료 중단 혹은 연기 상황이 발생했는데, 평균적으로 환자가 아닌 의사에 의한 예약 취소나 연기 비율은 7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
- 진료를 받기 위한 대기시간의 증가 역시 중위값 기준으로 20~25% 증가했으며, 설문에 응답한 의사의 87%는 진료 서비스가 재개되더라도 그 수준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
- 응답자들은 COVID-19나 다른 전염병의 유행 상황에서 비만 치료의 중단이나 연기에 대비하여 대안적인 치료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미래의 비만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답변

[Wiley Online Library, 2021.07.13.;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2021.07.16.]

유럽 EC, 암에 대처하기 위한 지식센터 개설

■ EU집행위원회(EC)는 '21년 2월 3일 40억 유로를 투자한 '유럽의 암퇴치계획(Europe's Beating Cancer Plan)'에 따라 추진되는 최초의 온라인 플랫폼인 '암지식센터(Knowledge Centre on Cancer)'를 개설

- 암지식센터는 유럽에서 65세 이하 인구에서 가장 높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는 암에 대한 의학적 증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연구진들의 협력을 도모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암과 관련된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상호 협력을 지원할 예정
- 암지식센터는 △암에 대한 통계와 최근에 발견된 다양한 증거를 제공하고 △암 발병 및 사망률 추이의 모니터링을 통한 암 예방 전략 및 진단 프로그램을 평가하고 △암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제공과 EU 내에서 암 치료의 불평등성을 개선할 예정
- 또한 △암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관련된 정책의 형성에 기여하고 △ 암 관련 연구와 정책 간의 격차를 없애고 △암과 관련된 다양한 계획을 조율하는 공간을 제공할 예정

[European Commission, 2021.06.30.]

싱가포르와 호주, 서로 다른 COVID-19 출구 전략 채택

■ 최근 재확산 추세를 보이는 COVID-19를 기존의 엄격한 통제 방역에서 독감, 홍역, 수두처럼 COVID-19와 공존하는 출구전략을 추진하는 싱가포르와 달리,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의 확산율을 보이는 호주는 다시 엄격한 봉쇄 정책을 선택

- 최근 다시 COVID-19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직면한 싱가포르는 집합금지나 재택근무, 확진자 비율이 높은 국가의 입국 제한 등 과거와 동일한 조치를 취하면서 동시에 확진자 급증 상황에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
- 싱가포르 당국은 독감과 마찬가지로 COVID-19는 변이를 계속하며 인류 사회 속에서 생존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독감이 발병해도 봉쇄 정책을 펼치지 않는 것처럼, COVID-19와 공존하는 방향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 이러한 싱가포르의 COVID-19 정책 변화 가능성은 60%를 상회하는 1회 이상 백신 접종률과 37%에 달하는 2차 접종 완료율에 기반
- 이러한 싱가포르와 달리, 접종 완료율이 7.92%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호주는 COVID-19를 여전히 심각한 감염병으로 보고 자가격리부터 전면적인 봉쇄조치에 이르는 단계별 조치에 의존

[ABC News, 2021.07.04.; Financial Review, 2021.06.25.]

화장품, '클린'을 전면에 내세우는 뷰티 제품들이 시장을 주도

■ 글로벌 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Euromonitor)에 따르면, '25년까지 스킨케어는 1,81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이며, '클린'을 강조하는 뷰티 제품의 등장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지난 15년 간 스킨케어 시장에서 환경의식과 '클린'이라는 개념이 지속적으로 화장품 시장에 확산

- '깨끗하다'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레이블은 이제 화장품 브러시 팔레트부터 안면 색조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뷰티 시장에서 핵심동력이 되고 있으며, 특히 '환경 친화적'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관련 제품시장의 성장을 주도할 전망
- 그러나 어떤 제품이 어느 정도로 깨끗한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개념이 없으며, 이 '깨끗하다'는 레이블을 관리하고 규제하는 주체가 없고, '천연 성분', '무독성' 혹은 '환경 친화적'이라는 표현이나 레이블도 동일한 상황
- 미국 화장품 시장은 업계의 자율 규제에 대부분 맡기고 있으며, 식품의약국(FDA)은 개별 화장품 출시를 승인하지 않는 반면, 제조업체들이 제품의 안전성과 제품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과 뷰티 제품에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성분의 리스트 열거를 통해 통제

[NPR, 2021.07.12.; Cosmetics Design- Europe, 2021.07.07.]

WHO, 람다 변이바이러스를 관심변이종 목록에 등재

■ COVID-19 변이바이러스 람다(Lambda, C.37)는 이미 세계에서 가장 높은 COVID-19 사례 사망률과 1인당 사망률을 기록한 페루에서 우세 변종이 되었으며, 세계보건기구(WHO)가 분류하고 있는 5개 지역에 속한 29개 국가로 확산

- '20년 8월에 페루에서 처음 발견된 람다 변이 바이러스는 지속적으로 확산세를 거듭하고 있으며, 페루에서 우세 변종이 되었고, '21년 4월 이래로 람다 변이의 비율이 80%를 차지
 - * 7월 9일 기준으로 페루의 COVID-19 확진자는 2백만명이 넘었으며, 치사율은 9.3%를 기록
- 6월 15일 현재 WHO 발표에 따르면, 람다 변이는 칠레, 에콰아도르, 아르헨티나 등 남미국가에서 우세 변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미국, 독일에서도 발견되고 있어 전 세계로 확산 추세
- '21년 6월 24일, 람다 변이는 에타(Eta), 이오타(Iota), 카파(Kappa) 변이와 함께 WHO의 관심변이종(Variants of Interest, VOI) 목록에 등재되었으며, 관심 변이종이란 보건상의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주의깊은 관찰이 필요한 변이바이러스라는 의미
 - * VOI는 우려변이종(Variants of Concern, VOC)의 직전 단계로, VOC에는 알파, 베타, 델타, 감마 변이가 포함

[Forbes, 2021.07.10.; Public Health of England, 2021.06.25.]